

인터넷 연결, '제조업의 스마트화' 추진

— 장수 제조기업의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의 활용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산업 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차세대 산업변혁의 핵심 구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장수는 기회를 선점하여 작년에 기업인터넷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제정 및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패턴, 새로운 제조, 새로운 산업의 혁신과 실천을 추진하였는바 '인터넷+선진제조업'의 대표적 사례를 다수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태도 조율하며 바뀌고 있다. 인터넷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에 대해 기사는 장수성 내 여러 선도기업을 인터뷰하였다.

패턴 1 : 스마트화 공장 건설 수익과 품질 향상
유다광덴(友達光電)(군산) 유한 회사는 저온 다결정실리콘 액정패널을 생산하는 타이완자본기업이다. 회사는 산업인터넷을 통해 디지털화 공장을 건설하였는바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전체 생산과정의 스마트화 관리와 모니터링 통제를 실현하였다.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기업은 주요 기계설비에 모두 신행 센서를 부착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기업 내부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변수 관계를 발굴 및 분석함으로써 생산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 효율을 제고하였다.
패턴 2 : 전반 시스템 플랫폼 건설 개선 있는 주문제작 실시
1만 명의 고객에게는 1만 가지 생각이 있다. 난징 '위웨(我樂)가 구'는 인터넷을 통해 개선 있는 가구의 소량 주문제작을 실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좋은 체험을 선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건설한 업무 전반 시스템의 소통 플랫폼 건설 덕분이다. "고객은 가게, 또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희 가구 디자이너와 같이 가구를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싱크대업체의 특

징에 부합되는 주문서를 생성합니다. 주문이 하달되면 플랫폼은 상품생산 주기를 감독하고 추적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제때에 만족스러운 완제품을 얻게 합니다." '위웨가구'의 관계자 리리(李莉)가 소개하였다.
패턴 3 : 제조기업 클라우드 전문서비스 구입
캐터필러사는 세계적인 공정기계 생산업체이다. 현재 쉬저우 공장을 비롯한 중국 여러 공장은 중국 첨단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 기업은 공정기계 생산주기 관리, 추적 관리, 예측 유지 보수, 에너지 소모 관리, 산업사슬 데이터 발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 원가를 절약하고 고객에게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플랫폼은 캐터필러사 스스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텐저(天澤)정보라는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빌려 쓴 것이다. 캐터필러사는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필요 없고 대량의 기초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도 없다. 모든 기술서비스인원은 텐저정보에서 제공하며 장비 한 대당 한 달에 소요하는 비용은 수십 위안에 불과하다.
패턴 4 : 대기업 산업사슬 시너지 발전 선도
난징 시엔성(先聲)제약업은 여

러 유명 기관과 '정밀의료 바이자후이' 프로젝트를 동공으로 건설해 성숙한 연구개발 플랫폼, 제약 자원 및 제약공급협동 클라우드 플랫폼을 창업자에게 개방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성장하고 중국의 약산업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다.
"시엔성제약업 바이자후이 플랫폼은 혁신창업팀 약 100개를 집결하였는데 그중에는 의약 연구개발도 있고 생물 제약도 있으며, 약품 소매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관계자 완위(萬宇)는 해당 플랫폼은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약의 협동을 실현하였고 소개하였다.

中国江苏
新华日报报业集团 主办
总第257期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xhww@xhbw.net
欲知更多新闻,请扫描右侧的二维码。
长江网英文频道

'국화꽃 드림' 과학적 연구, '부민의 결실' 맺어

혁신과 창업 인문
매년 황금 가을, 화려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난징농업대학교 후수(湖熟)국화기지는 현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치부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아름다운 꽃 바다의 배후에는 창장(長江)학자 특별초빙 교수이자 난징농업대 부총장인 천파디와 그의 '국화꽃 드림' 팀의 기여가 숨어있다.

화연구팀이다. 팀에는 육묘, 재배, 분자생물학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교수와 대학원생이 있다. 현재, 팀이 재배한 관상용 국화는 장수, 원난 등 10여 개 성시(省市)에 보급되었고 프로젝트 협력기관인 쿤밍 홍즈화(虹之華)원예유한회사, 핑다오(豐島)원예유한회사 등은 이미 중국에서 가장 큰 절화 국화 및 종묘 수출업체로 성장하였다. 난징농업대는 해마다 기업이 의뢰한 국화과 학연구 프로젝트 7, 8개를 접수하며, 기술적 지원과 아울러 시장에 맞춰 육묘와 재배기술을 지도한다.

난징농업대 실험용 전담에서 국화는 학과사슬을 연결하고 산업교량을 건설하였으며 더욱 넓은 세상에서 빛을 받고 있다. 화이안은 작년에 부지면적 200여 무에 2.4만 제곱미터의 스마트화 유리온실 박아마호국화단지를 개장함으로써 매일 2만여 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안후이 주저우, 텐진 바오디, 장수 서양 등지에서 더욱 큰 면적의 국화단지가 속속 건설되고 개장되었다. 난징농업대 국화연구팀의 품종, 기술 지원을 토대로 중국은 이미 국화 테마 레저관광까지 10여 개를 건설하였다.

난징농업대 후수국화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화 유전자 창고로 약 5,000개 국화자원과 3,000개 품종이 저장되어 있으며 기지는 또 자주적으로 국화 새 품종 300여 개를 개발하였다. "새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적어도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였습니디." 천 교수는 이렇게 소개하였다.
난징농업대의 국화연구는 탄탄한 기반이 있는데 천 교수의 지도 교수이자 옛 진링대학 교수인 리홍젠(李鴻漸) 교수가 1944년부터 국화품종을 수집 및 보존해온 것이다. 팀에는 현재 100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큰 국

알뜰달룩한 실험용 전담에서 혁신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천 교수는 과학연구는 마땅히 중국 중점전략 수요와 연결되어야 하는바 국화연구팀은 중국이 추진하는 아름다운 농촌 건설, 생태명명 건설과 레저관광농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사슬의 연결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후수국화기지는 가을시즌 국화전시만으론 관광객 수십만 명을 유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관광, 요식 등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수천만 위안의 관광소득을 창출하였다.

천 교수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난징농업대의 '황금 국화'가 구이저우(貴州) 마장현 빈곤 구제 일선에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구이저우 마장현 가오젠촌은 20무에 달하는 국화 재배를 발전시켰는데 큰 성공을 거두 올해 재배면적을 600무로 늘렸다. 이에 천 교수는 새로운 구상을 하였다. 산간지대의 특수 생태조건을 활용하여 식용 국화, 의약품 국화 등 기능형 국화를 개발함으로써 현지 산업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청(丹青)으로 빛을 사귀고 필묵으로 정을 나누다 2017중한 서예 교류전 신청서 개최



2017중·한 서예 교류전이 11월 6일 장수 신청서에서 개최되었는바 중·한 양국 서예 애호가들이 50여 점의 작품을 갖고 전시에 참가하였다.

호협회와 한중문화협회 전라북도지부는 19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민간교류를 추진하였는바 경제, 스포츠, 부녀연합회, 청소년, 전통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전시 기간 양국 서예가는 또 서예(書藝)교류를 진행하였다.
장웨이징·張會清/글 장수성 외사판공실 번역센터 위원징(俞雯婧)/사진 제공

호협회와 한중문화협회 전라북도지부는 19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민간교류를 추진하였는바 경제, 스포츠, 부녀연합회, 청소년, 전통공예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전시 기간 양국 서예가는 또 서예(書藝)교류를 진행하였다.
장웨이징·張會清/글 장수성 외사판공실 번역센터 위원징(俞雯婧)/사진 제공

장수성 긴급 뉴스

제9회 국제 신에너지 대회 우수서 개막

최근 제9회 중국(우시) 국제 신에너지 대회 및 전시회가 우시에서 개막되었다. 장수는 경제대성(大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대성이다. 장수 '제13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발전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장수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을 800만kw, 가능하면 1,000만kw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제고하며, 전성에 신에너지 자동차 25만 대를 보급함으로써 장수를 재생에너지 종합이용 시범성과 에너지 과학기술 강성(強省)으로 건설한다. 우시는 장수 신에너지산업의 간판 도시로 태양광발전, 풍력에너지와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중견 기업을 대거 유치하였다. 신에너지 산업규모도 120억 달러는 넘었다. 장수는 전 세계 모든 신에너지 기업이 장수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며 장수의 신에너지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 신에너지 대회는 지금까지 우시에서 성공적으로 8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도시와 마을,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생활'을 주제로 하며, 대회 기간 메인 포럼 1회, 전문 포럼 10회와 전시를 개최한다. 그중 전시면적은 4만㎡로 지난 대회에 비해 규모가 35%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선진 고분자재료 플랫폼 장자강(張家港) 입주

최근 장자강시는 캉더신(康得新)그룹과 '2개 단지와 1개 타운' 협력협의를 체결하였다. '2개 단지와 1개 타운'은 캉더신 신항공(新航空) 탄소섬유 복합재료산업단지와 캉더신 선진 고분자재료산업단지, 캉더신 마태 타운을 가리킨다. 프로젝트 총투자지는 1,800억 위안이며 2025년까지 모두 건설할 계획이다. 그때가 되면 연간 생산액이 3,000억 위안에 도달할 전망이다 세계적 선진 고분자재료 생태 플랫폼, 인제고지, 기술고지, 산업고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쑤닝(蘇寧) 독거노인을 위해 100만 위안 기금 설립

쑤닝은 중앙절을 맞아 난징 대보은사(大報恩寺) 문화발전기금회와 대보은사 유적지공원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100만 위안 기금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행사는 현장에 항일전쟁 노병(老兵), 난징대학살 생존자 등 노인을 귀빈으로 초대해 탑에 오르고 산수유나무를 심으며, 국화를 달고 <보은성전(報恩盛典)>을 감상하며, 등불을 밝혀 복을 기원하게 하였다. 장수성 민정청(民政廳)이 최근에 발표한 '노령인구정보 백서'에 의하면 장수는 독거노인 872.8만 명으로 최초로 노인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그들 중 80%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쑤닝은 장수성 자선총회에 기부한 기금 중 100만 위안을 따로 꺼내 '100만 위안 경로 기금 프로젝트'를 발기하였다.



국화꽃 채집에 참여한 화농들 화이안 바이마호(白馬湖)한약재양생산업단지가 최근 풍년이 들었다. 사진은 국화꽃 채집에 분주한 화농들의 모습이다.

난징 기업과의 협력 및 원-원을 기대하고 있는 김창영 대표

상담회 현장에 있는 김창영 대표
행기를 내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도시 규모가 크고 대도시라는 것을 실감하였다고 하였다. 부산과 비교할 때 난징은 질서가 더 있어 보이고 첫 번째 인상도 편안함이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난징다파이 당에서 중국 요리를 맛보았는데 맛이 깊었습니다. 한국 요리는 조금 담백한 편입니다. 중국 만두가 인상적이었는데 특색 있고 맛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매우 열정적이고 친구에 대한 분위기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시에 서 이번에도 모두 10개 기업의 대표 15명이 난징을 방문하였다고 하였다. HGTECH사는 도시 수자원관리시스템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도시 수자원관리시스템은 주로

AR, GPS 등 기술을 활용해 구역 내 정보를 통합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급수, 하수도 등에 적용된다. 보행자 식별 및 경고시스템은 GPU(그래픽 처리장치)그 래픽처리방법으로 실시간 안전인식을 실현하였다.
글로벌(난징)연구개발상담회 한국정보기술 특별 연결 상담회 현장에서 기사는 적지 않는 난징 현지 기업이 HGTECH사의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정첸(誠誠)네트워크과학 기술 난징유한회사 총경리 청치(程旗)는 기사에게 자신의 회사표 주로 스마트시티 등 업무를 취급하고 수자원처리해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도시급수 등 방면으로 확장시킬 계획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따라서 부산에서 온 이 기업을 보고 교류와 상담을 적

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난징 쓰페이지에(思飛捷)소프트웨어 과학기술유한회사 총경리 루샤오야(陸曉佳)는 본인의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회사라고 소개하였다. 현재 대부분 도시는 급수시스템인 글로벌 밸브를 땅속에서 파묻고 있는데 가끔은 참조물의 변화, 예를 들면 도로를 넓히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한다 글로벌 밸브를 기존의 도면으로 찾지 못하여 령다고 하였다. 만약 모든 글로벌 밸브에 센서를 부착한다면 문제 발생 시 센서가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해결이 매우 쉬워진다고 하였다. 현재 기술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고 하

장수의 한인사회